

國際通貨問題에 대한 두 가지 立場⁽¹⁾

韓 道 亨

본고는 1980년대 후반 국제환율제도의 개혁을 두고 일어났던 目標換率帶 논쟁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했던 기본주의자들과 목표환율대 지지자들의 논거를 살펴 보고 그들의 주장을 정초하는 이론과 사상의 기초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목표환율대 도입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취했던 기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근면과 절약, 창조적 기업정신의 발휘에 의해 발전해가며 이를 위해 경쟁제고, 규제완화 및 통화가치의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가치가 국제적으로 구현되기까지는 변동환율은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목표환율대 도입을 지지하는 통화제도 개혁론자들은 통화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간섭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관한 상반된 입장은 역사적 경험에서 얻어진 역사의 대조적 단면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관한 目標換率帶(Target Zone) 주창자와 基本主義者(Fundamentalist)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케인즈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目標換率帶 주창자들은 통화제도 개혁이 오늘날의 세계경제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필수적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基本主義者들은 금융정책을 장기적 환율목표를 위해 종속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제도적 개혁은 立憲的 變化로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²⁾

필자는 본고에서 쌍방의 상반된 입장의 배후에 깔려 있는 이론적·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국제통화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으나 환율체제의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만한 연구로서 필자는 독일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지페르트(O.Sievert) 교수의 주장과 국제통화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설파하는 스트레인지(S.Strange) 교수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는 전후 독일의 성공적인 통화금융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변동환율제도가 불가피함을 논증함으로써 기본주의자들과 연결된다. 이에 반해 후자는 국제통화문제가 고전학파적 自由放任에 의해 해결될 수 없고 제도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사적 분석의 맥락에서 검

(1) 이 연구는 1996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2) 목표환율대 주창자와 기본주의자들은 논쟁에 대해서는 줄고(1993, 2장) 참조.

토함으로써 목표환율대 제안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 現體制 不可避論

지페르트³⁾의 현행환율체제 불가피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 명제 위에서 있다 [Sievert(1986, pp. 215-223)]. (i) 인플레이는 경제를 운용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ii)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국제자본이동의 지배적 영향을 받고 있다. (iii) 오늘날의 선진공업국 경제들의 공통적 문제는 失業으로서 이는 성장의 침체에서 비롯된다. (iv) 경제성장의 침체는 저축과 투자의 부족에 기인한 바, 이의 원인은 경제에 있어서 상대가격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v) 오늘날 국제통화문제의 근본원인은 위와 같은 조건들 하에서 미국의 과도한 財政赤字에 기인한다. (vi)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은 미국이 과도한 재정적자정책을 버리고 고전적인 수단에 의거할 때 기대될 수 있다.

전후 서구 복지국가 건설에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던 케인즈 경제학이 퇴조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일어났던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비롯하는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책노선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³⁾ 이전까지 믿을 만한 명제로 받아들여졌던 物價와 雇傭의 안정적인 相反關係에 관한 필립스 곡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통화적 수단에 의한 총수요정책으로써는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물가상승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서구 선진공업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유독 독일(서독)만이 “인플레이의 大海 가운데서 安定의 孤島”[Sievert(1986, p. 215)]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후 독일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안정화 정책의 凱歌라고 하겠다. 독일정부의 공식견해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인플레이는 경제를 운영하는 적절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1960년대 이후 발달하여 왔던 단기적 국제자본이동은 인플레이션 성향의 국가를 징별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통화의 대외가치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투기적 자본유출을 자극하고 이는 이제까지 추진하여 왔던 정책의 수정을 강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제자본이동의 향방은 일국 경제의 상태를 가

(3) 영국에서는 1976년 노동당 내각(Callaghan 수상)하에서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상이 정책변화를 시도하였고, 미국에서는 1979년 Volcker FRB 의장의 통화정책 대전환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였다[S.Strange (1985, p. 20)].

능하는 지표가 된다.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적인 총수요관리 정책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저축-투자의 증대와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선진 공업국이 처한 상황은 저축 부족과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의 정체와 만성적인 실업의 증가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윤과 임금의 상대가격, 금융자본수익율과 실물자본수익율의 상대가격의 歪曲에 기인하므로 그에 대한 처방은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수요측면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같은, 경제의 硬直性을 완화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며 동시에 저축을 증가시키는 등의 공급측면에서의 처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공업국의 경제에 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본질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독일정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지페르트, 슈타르바티(Starbatty(1986))와 독일의 중앙은행가들 외에도 미국의 펠드스타인(Feldstein(1986, 1988)), 프랭클(Frenkel(1987)), 그리고 하벌러(Haberler(198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신고전학과 -일반균형이론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지페르트(1985, pp. 216-218)에 의하면 고정환율제도는 다음의 3가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i) 국가들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격차가 사라지고 안정화 정책이 수렴되어야 한다. (ii) 안정된 基軸通貨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실질환율의 변동이 잘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⁴⁾ 이 조건들은 오늘날 매우 잘 발달한 국제자본이동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정환율의 지속은 어렵다. 1970년대말 이후로 선진 공업국들간의 물가상승을 격차는 많이 좁혀지고 있고 안정화 정책의 수렴도 현저하나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基軸通貨國의 역할을 수행 하였던 미국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지위를 남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것 같다. 오늘날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제자본이동은 실질환율과 무역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고정 환율로의 복귀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면 고정환율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요통화들의 목표환율대는 어떠한가? 지페르트에 의하면 오늘날의 경제적 상황이 기본적인 相對價格의 歪曲과 貯蓄의 不足에 기인하는 것

(4) 이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요구된다. 경제에 실질교란이 발생했을 경우 고정환율이나 변동환율 다 같이 환율의 조정을 요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환율제도에 따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동이 종종 무역흐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즉 실물자원의 이전을 요구할 경우 고정환율은 경제의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을 강요하므로 인내하기 어려운 반면 변동환율은 그것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면 목표환율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물가 불안정을 유발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1980년대를 통해서 현저한 현상은 미국의 거대한 재정적자와 高달러, 그리고 보호주의의 심화이다. 문제의 발단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거대한 재정적자정책에 있는 한 이것을 해결하거나 완화하지 않는다면 주요 선진국들 간의 어떠한 환율협약이나 국제경제정책 조화도 1980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늘날과 같이 발달한 국제자본이동의 세계에서 이자율과 환율은 각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이 병립하기 위해 움직이는 市場變數들이다. 기본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이 변수들을 조정하면 다른 부문에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高달러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긴축 금융정책을 쓰면 경기후퇴와 실업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도 개선될 수 없다. 반대로 다른 선진국들이 확대 재정정책을 쓰면 일시적으로 달러화를 돕겠지만 이 국가들은 미국의 전철을 밟게 된다. 다시 말해 확대재정은 세계적인 資本不足을 초래하여 투자를 저해하고 고용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貿易制限도 미국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정부가 信用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는 한 외국자본유입과 그에 대응하는 經常赤字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국내 민간신용수요, 따라서 민간투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성장의 둔화와 실업의 심화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제는 膠着狀態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미국정부의 재정적자정책은 1970년대말에서 1980년대로 넘어가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취한 政治的 選擇을 반영한다.⁽⁵⁾ 그로 말미암은 高달러를 목표환율대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완화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통화공급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은 자극될 것이다.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다른 대안들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이 미국경제의 침체와 미국정부가 취한 정치적 선택에 있는 한 어떠한 금융정책수단도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독일의 공식견해에 의하면 통화가치의 안정 즉 물가안정은 신뢰창조의 으뜸가는 요인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면 革新的 投資에 강력한 효과

(5) 주지하다시피 1979년 카터 행정부는 미국 경제의 제1의 公敵이 인플레이션임을 인정하고 금융정책의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Volcker의 긴축금융 및 여신통제 처방). 그 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경제의 回生을 위한 대규모의 공공지출과 감세정책이 추진되었다. 이것이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낳은 원인이다. 이는 여타 세계(특히 OECD 공업국)에 수출호황을 가져다 주었으나 미국 수출산업의 붕괴와 보호주의 압력을 초래하였다.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레이건 행정부의 선택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를 가진다[Starbatty(1986, p. 116)]. 만약 선진경제들이 세계경제가 확대금융정책에 의해 추진력을 얻도록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불가피한 정책적 전환을 예비하는 것과 같고 투자의 좌절과 구조적인 低技術革新率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통화제도의 개혁은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변동환율이 근자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많은 국가들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安定化를 향한 힘겨운 노력을 반드시 경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제도적 변화가 없어도 장래 환율변동의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더우기 가까운 장래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높은 안정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동의 변화무쌍한 요인들이 상존하는 현금의 세계에서 우리는 변동환율이 갖고 있는 충격흡수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이 지페르트가 대변하였던 변동환율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독일의 공식견해이다.

2. 通貨制度改革 優先論

독일의 공식견해는 통화를 실물부문과 분리하고 실물부문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古典的인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세계경제를 침체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이고 통화는 엄격한 규칙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스트레인지는 주도적인 국가들이 전세계적인 생산체제를 지탱하기에 충분할 만큼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通貨制度를 운영하지 못한 무능력이 오늘날의 경제적 무질서를 초래했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레인지는 1970년대초부터 1980년대초에 이르기까지의 10년간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 因果的 說明을 시도한 여러 학자들의 저술들을 개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부각시켰다. 이제 그의 논문을 살펴봄으로써 국제통화문제에 대해 음미해볼 만한 다른 시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Strange(1985, p. 1-43)].

오늘날 저개발국가나 선진국의 소외계층들 가운데서 국제통화제도의 中立性에 대해 의혹을 표시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⁶⁾ 스트레인지에 의하면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歷史的 解釋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 무질서에 대한 책임을 貿易政策에 돌리는 설명이고, 둘째는 여러 가지 유형의 決定論的 說明이다. 스트레인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각기 잘못된 인식 위에서 있으며 경제적 혼

(6) 예를 들면 미국내의 중소기업들의 보호주의적 요구나 개도국들의 외채문제에 대한 태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란의 진정한 원인은 잘못된 통화관리에 있고 保護主義는 경제적 무질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첫번째 부류의 설명에 대해 1930년대의 경험, 즉 大量失業과 실패한 需要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들은 모두 關稅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다⁽⁷⁾는 슈페터(Schumpeter), 윌리엄스(J. Williams), 타우식(Taussig) 등의 증거를 인용하여 반박하였고, 특히 관세는 장기적 요인들보다 국제무역의 덜 중요한 決定因子라는 루이스(Arthur Lewis)의 지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러 가지 決定論的 說明들-여기에는 기술적, 정치적, 기타 결정론적 설명들이 있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부연설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스트레인지의 시각에서 볼 때 잘못된 설명들이 범람하여 올바른 인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그 원인을 전후의 구미 선진국에서 두터운 경제적·정치적 미들 그라운드(middle ground)를 구축하였던 케인지언 여론이 몰락함으로써 생긴 知的 공백에서 찾았다. 주지하다시피 케인지언 수요관리정책은 시장경제에 정부의 간섭을 첨가함으로써 각국에서 당파를 초월하여 福祉國家의 건설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초 달러를 基軸通貨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고 1970년대를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부터였다. 그러한 변화가 영국에서는 1974년에서 1976년 사이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9년에 일어났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스트레인지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들을 발견한다[Strange(1985, p. 37-38)]. 첫째로 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 경제가 직간접적으로 世界市場體制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 資本과 技術은 쉽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케인지언 미들 그라운드의 기저에 깔려 있던, 정부가 국가내에서 사물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가정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로 동일한 가정이 우연하게 다른 주요한 변화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선진경제들에 있어서 관료기구 및 공공부문예산의 비대화였다. 사회적 서비스와 복지제도 그리고 산적하는 국방수요는 사양산업의 보조와 새로운 산업에의 투자를 위한 지원에 추가되었다.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의 절반을 초과하는 상황하에서 1920년대와 같은 민간부문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정부부문이 비대해져감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과 인플레 우

(7) 구체적으로 1930년대초에 제정된 Smoot-Hawley 보호관세를 가리킨다.

려의 재발과 같이, 신뢰를 손상시키는 반면 투자를 부활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역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업 및 사회보장지출이 꽤 높은 수준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소득재분배정책은 이자율 감소에 비해 수요와 기업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그 효력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미들 그라운드 지적인 황폐화로 말미암아 논자들은 통화제도의 발전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決定論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決定論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개인에 관한 實存主義(existentialism)의 社會的·政治的 等價物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Sartre)에 의하면 1950, 1960년대의 실존주의 저자들은 개인의 선택과 행동은 社會라는 외생적 힘에 의해 규정되는 경험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Strange (1985, p. 38)]. 그러므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부수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개인은 무죄방면되었고 그의 행위가 상패를 벗어났거나 파괴적이라고 하더라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들의 선택이 콘드라티에프의 長週期, 기술변화, 또는 정치적 지배력의 상실 등에 의해서 규정되고 강제된다고 보는 결정론도 실존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럴듯해 보이고 현재의 병폐의 근원을 더이상 찾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동일한 便宜主義的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社會的 決定論은 경제 특히 통화 문제의 원인을 경제학의 범주, 즉 이론가의 영역 밖에 둬으로써 경제이론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원인은 技術, 아랍인들, 아니면 勞動組合이거나 대중들에게 끊임없는 소비증대의 환상을 불러 일으킨 대중매체들이다. 비난의 대상이 무엇이든 경제이론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해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근본문제가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決定因子를 설명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왜 미국은 유가상승에 대해 비인플레이적인 수단을 통하여 適應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또는 할 수 없었던가, 왜 월남전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조세를 통하여 조달할 수 없었던가, 그리고 석유파동 이후 오일달러의 還流를 유로통화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 등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하여 반드시 '예'라고만 대답할 수 없는 역사적인 실례를 찾아 볼 수 있다.⁽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앞서 지적한 결정인자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설명을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브레튼우즈 제도

(8) 한국전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일차상품의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은 술선해서 배급에 의지하였다.

가 붕괴한 원인은 선진공업국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본다. 미국은 루에프(J. Rueff)와 드골 대통령이 거듭 지적하였던 金換本位 하에서의 ‘不當한 特權’을 행사하여 세계은행으로서의 책임을 放棄했고 금융시장이 통화제도를 허물어 파괴하도록 방치했다. 그들에 의하면 변동환율로의 이행은 승리가 아니라 총체적인 재앙을 수반하지 않고 일어난 또 다른 후퇴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서도 로오손(R. Rowthorn)은 은행신용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이다.⁽⁹⁾ 로오손은 은행들이 실제로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는 자본의 有機的 構成에 대하여 만델(E. Mandel)과 근본적인 불일치를 보인다. 만델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後期資本主義의 핵심적 변수이고 그것이 증가했다고 믿고 있으므로 이윤 짜내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다. 이에 반해 로오손에 의하면 신용 증가로 인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자에 이윤은 산출의 보다 작은 몫을 차지하였다. 왜냐하면 노동자 1인당 이윤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선점하고 노동자의 몫은 노동조합 조직을 통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오손은 이윤 짜내기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로오손은 1980년대의 경기침체의 이유에 대해서도 만델과 견해를 달리한다.⁽¹⁰⁾ 만델은 불황이 자본주의체제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보았다. 그는 過剩生産의 구조적 위기가 장주기의 역전,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호전성, 그리고 OPEC으로의 구매력의 재분배 등을 포함한 다른 景氣循環的 危機들과 더불어 나타났다고 말한다. 로오손에 의하면 범세계적 생산구조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일된 규칙에 의한 생산구조의 調節(regulation)을 요구한다. 통일된 규칙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논리인 ‘價値의 法則’이 국가들간에 일어나는 충돌을 중재하고 위기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美帝國主義”의 악의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논리의 具現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로오손은 경제적 책무보다 정치적 책무를 보다 많이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하락하는 이윤율을 억제하는 인플레이션의 능력을 다 써버렸다. “보다 많은 投藥이 필요했” 결국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회피하고자 했던 窮極的인 選擇⁽¹¹⁾에 직면하게

(9) Rowthorn(1980). 본문 내용은 Strange(1985) 참조.

(10) 만델의 소론도 스트레인지의 논문에서 요약되어 있다[Strange(1985, pp. 32-33)].

(11) “궁극적 선택”이란 표현에 대해 스트레인지는 부연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문맥상으로 볼 때 자본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적 “投藥”에 의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여 왔으나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에 이르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적

되었다. 1979-1980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信用制限의 부과와 通貨目標의 채택은 이윤율의 하락을 야기했고 이것은 다시 전반적인 세계경기후퇴를 초래했다. 이제 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투기자들에게 상을 주었고 약자를 희생하여 강자에게 상을 줌으로써 市場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로오손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은 혁명을 통한 체제 붕괴를 초래하고 사회주의체제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희망을 향유하지 않고, 금융과 신용의 국제화가 정부와 정부, 계층과 계층 간의 정치적 협력을 방해하여 경제질서를 파괴시킨다고 보는 극소수의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결정론은 두 가지 조건들과 일치하고 그 조건들 하에서만 가능하다. 첫째, 통화 및 금융에 있어서 선택, 특히 신용창출과정에 대한 규제와 신용획득에 대한 감시에 있어서 선택의 요소는 부정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 둘째, 생산, 고용 및 무역의 분석은 통화 관리와 분리되어야 하고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아마도 이것은 국제적으로 양 분야를 취급하는 國際機構들이 일국내에서와는 달리 분리되어 있고 상호간에 교통이 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양자간의 분리는 관찰자로 하여금 국가나 기업의 직접적인 금융 상황 그 이상을 관찰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만든다. 아마도 이것이 通貨管理에 대해 오히려 道德的 태도를 취하는 통화주의자들과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통화에 대해 超道德的 태도를 취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하여금 위의 두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통화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반대되는 가정, 즉 신용의 관리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고도로 정치적이란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하는 데 따라서 세계경제의 진퇴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스트레인지는 근래의 세계통화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통화와 금융에 관한 政治的 決定들이 그 무엇보다도 국가간, 그리고 계층간에 이익과 손실, 그리고 위험과 기회의 분배를 결정지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3. 比較 및 吟味

이상에서 필자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目標換率帶 논쟁에서 시작하여 그 이론적·사상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환율제도의 개혁에

“投藥”의 효과가 消盡되었을 때 경제는 쓰디 쓴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지페르트가 政治的 選擇이라고 말한 레이건 행정부의 예산적자정책도 미국이 쓰디 쓴 선택을 회피, 유보하기 위해 해외로 轉嫁한 방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한 찬반논쟁이 뿌리가 깊고 역사적인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두 입장은 국제통화제도의 혼란에 대해 같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상이한 哲學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질에서는 이에 대하여 좀 더 명시적으로 논술해 보고자 한다.

한편에서 기본주의자들은 오늘날의 경제문제가 통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근원에서부터 治癒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류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기본원리 즉 근면과 절약 및 기업정신의 발휘에 의해 경제가 발전·성장해 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제고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통화가치의 안정은 지속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원리가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확산되지 않는 한 국가간의 경제적 갈등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고정환율이든 변동환율이든 그 본래의 장점은 있다. 고정환율은 規則(rule)의 엄격함, 그리고 변동환율은 自己規律(self-discipline)이 각각의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에 충실하기 위해서 각 경제는 위에서 말한 기본원리에 따라 운행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환율은 붕괴된다. 고정환율제도는 안정된 기축통화국이 존재해야 한다. 이 중심국가가 기본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세계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반면 변동환율의 경우 각 참가국들이 자기규율에 철저하면 고정환율로 이행하는 문턱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변동환율은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화적인 수단에 의거하는 정책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통화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경제적인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제도개혁론자들의 반박은 다소 신랄하다. 그들은 통화에 관한 한 사람들의 中立的 태도를 믿지 않는다. 통화주의자들이 통화관리에 대하여 도덕적 태도를 취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초도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통화 및 신용의 공급에 있어서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화주의자들은 규칙에 따른 통화공급을 강조한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들이 革命을 통한 체제의 몰락과 돈이 인간관계에 있어 더 이상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社會主義體制에 의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기본주의자들은 경쟁의 원리와 古典의인 성장의 법칙에 충실함으로써 통화의 中立性을 확보하고 그 파괴적인 해악을 中和시킬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제도개혁론자들은 “通貨는 스스로 管理될 수 없다”⁽¹²⁾(money cannot

(12) 이 命題는 런던의 王立國際問題研究所(RIIA)의 Chatam House 연구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의 모토(motto)였다(Tsoukalis(1985)).

manage itself)고 믿고 있으며 金融市場의 無缺性이나 完全性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경제적 혼란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탄생한 브레튼 우즈 통화제도가 붕괴하고 오늘날의 경제적 무질서가 초래된 원인의 규명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통화관리의 오류와 정치적 결정이 작용하였음을 명백히 발견할 수 있었다. 전후 케인지언 미들 그라운드에서 있던, 국경안에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은 가속화하는 市場의 國際化와 관료기구 및 공공부문 예산의 비대화로 말미암아 무력화되었다. 이와 같은 미들 그라운드의 知的 황폐화가 많은 논자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경제적 혼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결정론에 의지하게 만들었던 所以라고 보는 것이다. 결정론은 사회적 병폐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는다. 그러나 극소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¹³⁾이 간파한 것처럼 금융과 銀行(banking)의 국제화가 자본주의체제의 '아킬레스 踵'이며 정부간, 사회계층간의 정치적 협조를 무너뜨리고 經濟秩序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保守的인 진영에 속하는 소수의 單獨者들도 역시 통화제도의 붕괴와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범람과 해악을 우려하였다는 것은 적기할 만하다.⁽¹⁴⁾

우리는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일견에도 서로 대립적인 입장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두 견해는 역사적 경험에서 얻어진 역사진행의 대조적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한 설명이 다른 한 설명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人間歷史의 상이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스미스(A. Smith) 이래 많은 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이 경제발전에 대하여 사색한 결과 얻은 하나의 결론은 앞서 기본주의자들이 취한 保守主義的 立場이다. 즉 절약, 근면, 창의를 기본적인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 없이 인간의 경제적 향상의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가치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自由市場經濟의 달성만이 인류의 궁극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러면 제도개혁론자들은 이와 같은 원리를 부인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들은 人間屬性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자유시장경쟁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욕망은 때로 구조적인 악으로 변화하여 진보를 좌절시키는 힘으로 작용

(13) 아민(S. Amin)과 로오손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 體制의 붕괴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Strange(1985, p. 35)].

(14) Gilbert(1980), Triffin(1964, 1966)이 代表的이다. 또 Moffitt(1983)도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하기도 한다. 개혁론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시장에의 완전방임은 때때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간섭과 制度的 安全裝置의 마련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慶北大學校 經濟通商學部 教授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전화 : (053)950-5431

팩시 : (053)950-5429

參 考 文 獻

한도형(1993): 『국제통화제도의 개혁논의와 전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ergsten, F.(1986): "Crisis and Reform - The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delivered at th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November. 13,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_____ (1986): "Stabiliz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e Case for Target Zones," in J. H. Makin(ed.), *Exchange Rate Targets: Desirable or Disastrou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Research, Washington.

Feldstein, M.(1986): "U.S. Budget Deficits and the European Economies: Resolving the Political Economy Puzzle," *AEA Papers and Proceedings*, May.

_____ (1988): "Rethinking International Economic Coordination," *Oxford Economic Papers*, 40.

Frenkel, J.(1987):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Should it be Reformed," *AEA Papers and Proceedings*, May.

Gilbert, M.(1980): *Quest for World Monetary Order: The Gold-Dollar System and Its Aftermath*, John Wiley & Sons, New York.

Haberler, G.(1987): "Further Thoughts on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Monetary Coordination*,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169.

Moffitt, M.(1983): *The World's Money-International Banking from Bretton Woods to the Brink of Insolvency*, Simon & Schuster, New York.

- Sievert, O.(1986): "Is There an Alternative to Floating Exchange Rates?," *INTERECONOMICS*, September/October, Verlag Weltarchiv, Hamburg.
- Starbatty, J.(1986): "Crisis Management in Exchange Rate Policy," *INTERECONOMICS*, May/June, Verlag Weltarchiv, Hamburg.
- Strange, S.(1985): "Interpretations of a Decade," in L. Tsoukalis(ed.)(1985).
- Triffin, R.(1964):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Tsoukalis, L.(1985): "The New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Prospects for Reform," in L. Tsoukalis(ed.)(1985).
- _____(ed.)(1985):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Money: In Search of a New Order*,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SAGE Publications.